

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, 당진시 공기관대행 사업 지방비 확보!

✎ 서세진 기자 | ☎ 승인 2025.07.03 16:50



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 전경

[충남일보 서세진 기자]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는 당진시로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2025년 공기관 대행사업 제2회 추경예산 55억 원을 교부받아 영농환경개선을 위하여 하반기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며, 금년 1월에 교부받은 본예산은 57억으로 약 80% 상반기 집행을 완료했다.

2025년 총 확보 예산은 112억 원이며 유지관리성 사업비로는 전국 최대 규모의 지자체 교부 사업비로 당진 관내 취약시설 보수 및 영농 불편사항 해소함에 따라 농업인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당진시 오성환 시장은 당진시 농업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. 특히 당진시는 1970년대 시작된 간척사업(농업종합개발사업)의 일환으로 준공 후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시설이 대부분인 실정으로 시설 현대화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국비사업 확보를 위하여 중앙부처와 지속적인 협의·추진하고 있다.

또한 당진시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에 당진시 예산을 지속으로 투자하고 있으며, 매년 약 100억 원 규모의 시설 보수 예산을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에 지원하고 당진시 자체적으로도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정비함으로써 농업인들의 영농환경개선 및 농경지 재해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.

주은규 지사장은 “당진시에서 지원하는 공기관대행사업비는 보수가 시급한 시설을 빠르게 정비할 수 있으며, 농업인의 숙원사업을 시행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”며 “아울러 우리 공사는 국비로 추진하는 수리시설개보수사업 및 배수개선사업에 대하여 다수의 신규 지구가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고 밝혔다.



서세진 기자 4096900@naver.com